

2024년도 지방직 한국사(C책형) 해설

[정답표]

1	2	3	4	5
②	①	①	④	④
6	7	8	9	10
③	③	①	①	②
11	12	13	14	15
③	②	②	②	①
16	17	18	19	20
④	③	④	②	③

1 - 신석기 시대

1. 신석기시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가락바퀴와 뼈바늘로 옷이나 그물을 만들었다.
- ② 군장이 죽으면 그의 권력을 상징하는 고인돌을 만들었다.
- ③ 동물 뼈나 조개껍데기로 된 목걸이나 팔찌를 만들어 착용하였다.
- ④ 일부 지역에서는 농경이 시작되어 조, 피, 수수 등을 재배하였다.

정답> ②

신석기 시대에 대해 묻는 문제이다.

군장이 죽으면 그의 권력을 상징하는 고인돌을 만든 것은 청동기 시대의 일이다.

오답 해설>

① 가락바퀴*와 뼈바늘로 옷이나 그물을 만들기 시작한 것은 신석기 시대의 일이다.

*가락바퀴: 실을 감는 도구인 '가락'을 끼워 사용했기 때문에 가락바퀴라고 부르며, 가락의 다른 이름인 방추를 붙여 '방추차'라고도 한다. 이로써 원시적 수공업이 행해졌음을 알 수 있다(청동기 시대까지 사용).

③ 동물 뼈나 조개껍데기로 된 목걸이나 팔찌를 만들어 착용한 것 역시 신석기 시대의 일이다. 동물의 뼈와 뿔, 치아, 조개껍데기(패각) 등을 소재로 만든 도구를 골각기라고 하는데, 동물의 뼈로 만든 것은 구석기 시대부터 등장하였다(신석기 시대에는 더욱 세련된 골각기 제작). 조개껍데기를 사용한 것은 신석기 시대로, 참고로 부산 동삼동 유적과 인천 옹진 소야도 등에서 조개껍데기 가면이 출토되어 신석기 시대 사람들의 예술 활동을 잘 보여준다.

④ 일부 지역에서 농경이 시작되어 조, 피, 수수 등을 재배한 것 역시 신석기 시대의 일이다. 참고로 일부 지역(저습지)에서 벼농사가 시작된 것은 청동기 시대의 일이다(농경 시작과 벼농사 시작 시대 다름, 주의).

2 - 고조선

2. 다음과 같은 법이 있었던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사람을 죽이면 즉시 사형에 처한다.
- 남에게 상처를 입히면 곡식으로 배상한다.
- 남의 물건을 훔친 자는 그 집의 노비로 삼는데, 스스로 죄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50만을 내야 한다.

- ① 동맹이라는 제천 행사가 있었다.
- ② 상, 대부, 장군 등의 관직을 두었다.
- ③ 위만이 준왕을 몰아내고 왕이 되었다.
- ④ 중국의 한과 한반도 남부 사이에서 중계무역을 하였다.

정답> ①

위에서부터 '사람을 죽이면 즉시 사형에 처한다', '남에게 상처를 입히면 곡식으로 배상한다', '남의 물건을 훔친 자는 그 집의 노비로 삼는데, 스스로 죄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50만을 내야 한다'는 내용이 차례로 제시되어 있다. 유명한 고조선의 범금 8조를 가리킴을 알 수 있다.

매년 10월에 동맹이라는 제천 행사가 있었던 국가는 초기 국가, 고구려이다(국중대회).

오답 해설>

- ② 고조선은 왕 아래 상, 대부, 장군 등의 관직을 두었다(대신, 박사 등의 관직도 설치).
- ③ 위만(?~?)은 기원전 194년에 (중국 군대가 침입하여 온다는 구실을 허위로 내세워) 왕검성을 공격하여 준왕을 몰아내고 스스로 왕이 되었다. 이에 준왕은 남쪽 진국으로 이주한 후 자신을 한왕(韓王)이라 칭하였다. 참고로 위만은 고조선에 망명해 올 때 상투를 들고 왔다. 중국의 『위략(魏略)』이라는 사서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조선인의 옷' 착용 포함). 또 위만은 정권을 잡은 후에도 (고)조선이라는 이름을 그대로 사용하였고 (고)조선의 전통을 계승하였다(단군의 고조선 계승).
- ④ 고조선 중국의 한(漢)과 한반도 남부(진국(辰國)) 사이에서 중계 무역을 하였다. 한이 고조선을 침략하게 된 중요한 계기 중 하나이다.

3 - 백제(정사암 회의)

3. (가)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의 호암사에는 정사암이란 바위가 있다. 나라에서 장차 재상을 의논할 때에 뽑을 후보 서너 명의 이름을 써서 상자에 넣고 봉해서 바위 위에 두었다. 얼마 후에 열어 보고 이름 위에 도장이 찍힌 자국이 있는 사람을 재상으로 삼았다. 이런 까닭에 정사암이라 했다.

- 「삼국유사」 -

- ① 6좌평과 16관등제를 마련하였다.
- ② 태학이라는 교육기관을 설립하였다.
- ③ 인안이라는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하였다.
- ④ 골품에 따라 관등이나 관직 승진에 제한이 있었다.

정답> ①

'(가)의 호암사에는 정사암이란 바위가 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나라에서 장차 재상을 의논할 때에 뽑을 후보 서너 명의 이름을 써서 상자에 넣고 봉해서 바위 위에 두었다. 얼마 후에 열어 보고 이름 위에 도장이 찍힌 자국이 있는 사람을 재상으로 삼았다. 이런 까닭에 정사암이라 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를 통해 주어진 자료 속 '(가) 국가'는 백제를 가리킴을 알 수 있다. 백제는 정사암에 모여 국가 중대사를 논의하였다(천정대와 호암사지에서 정사암 회의 열림). 정사암 회의는 백제의 귀족 회의이다.

6좌평과 16관등제를 마련한 국가는 백제이다(260, 백제 고이왕 27)*. 6좌평 중 내신좌평이 정사암 회의 주장 역할을 겸하면서 '상좌평'으로 불렸다.

*6좌평제의 마련을 고이왕 대로 보지 않고 4~5세기경에 처음 설치되기 시작했다거나 무왕 때인 7세기 전반에 만들어진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오답 해설>

- ② 태학이라는 교육 기관을 설립한 것은 고구려 소수림왕 2년인 372년의 일이다.
- ③ 인안이라는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한 것은 발해의 제2대 국왕인 무왕 대(재위 719-737, 대무예)의 일이다. 참고로 제3대 국왕인 문왕(재위 737-793, 대흙무)은 '대흥', '보력'이라는 연호를 사용하였다.
**연호(年號): 중국에서 비롯된 군주 국가의 기년법(紀年法)(과거의 어떤 해를 기점으로 해를 계산하는 방법)으로, 군주의 치세(治世)에 붙이는 칭호이다. 원호(元號), 다년호(大年號)라고도 하며, 중국 한(漢) 무제(武帝) 때의 건원(建元)이 최초의 연호이다. 원칙적으로 연호는 황제만이 사용하고, 제후왕은 독자적 연호를 사용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연호가 있다 함은 그 나라의 '독자성'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 ④ 골품에 따라 관등이나 관직 승진에 제한이 있었던 국가는 신라이다(폐쇄적 신분제인 골품제). 6두품은 6관등인 아찬까지, 5두품은 10관등인 대나마까지, 4두품은 12관등인 대사까지만 승진할 수 있었다. 진골은 제한 없이 모든 관등에 오를 수 있었다.

4 - 신라의 고승, 혜초

4. (가)에 해당하는 인물로 옳은 것은?

(가)은/는 중앙아시아와 인도지역의 다섯 천축국을 순례하고 각국의 지리, 풍속, 산물 등에 관한 기행문을 남겼다. 이 기행문은 중국의 둔황 막고굴에서 발견되었으며 현재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있다.

- ① 원광
- ② 원효
- ③ 의상
- ④ 혜초

정답> ④

'(가)은/는 중앙아시아와 인도 지역의 다섯 천축국을 순례하고 각국의 지리, 풍속, 산물 등에 관한 기행문을 남겼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이 기행문은 중국의 둔황 막고굴에서 발견되었으며 현재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를 통해 주어진 자료 속 인물은 구법 순례기인 『왕오천축국전』을 지은 승려인 신라의 고승, 혜초(704~787)를 가리킴을 알 수 있다(727, 성덕왕 26).

오답 해설>

- ① 신라의 고승, 원광(555~638)은 화랑도의 규범으로 세속 5계를 제시한 인물이다(601, 진평왕 23). 원광은 또 왕명으로 수에 군사를 청하는 「걸사표(乞師表)」를 지은 인물이기도 하다(608, 진평왕 30). 「걸사표」는 수[양제](재위 604~618, 제2대)에게 사신을 통해 3년 뒤인 611년에 보내졌다(「걸사표」의 일문은 현재 전하지 않음).
- ② 신라의 고승, 화쟁국사 원효(617~680)는 무애가를 지어 정토 신앙을 전파함으로써 불교 대중화에 기여한 인물이다.
- ③ 신라의 고승, 원교국사 의상(625~702)은 「화엄일승법계도」를 지어 화엄 사상을 정리한 인물이다(668, 문무왕 8).

5 - 화통도감

5. (가)에 해당하는 기구로 옳은 것은?

비로소 (가)을 설치했다. 판사 최무선의 말을 따른 것이다. 이때에 원나라의 염초 장인 이원이 최무선과 같은 동네 사람이었다. 최무선이 몰래 그 기술을 몰아서 집의 하인들에게 은밀하게 배워서 시험하게 하고 조정에 건의했다.

- 『고려사절요』 -

- ① 교정도감
- ② 대장도감
- ③ 식목도감
- ④ 화통도감

정답> ④

'비로소 (가)을 설치했다. 판사 최무선의 말을 따른 것이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이때에 원나라의 염초 장인 이원이 최무선과 같은 동네 사람이었다. 최무선이 몰래 그 기술을 몰아서 집의 하인들에게 은밀하게 배워서 시험하게 하고 조정에 건의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를 통해 주어진 자료 속 '(가)'에 해당하는 기구는 최무선(1325~1395)의 건의로 고려 우왕 3년인 1377년에 설치된 화통도감임을 알 수 있다. 최무선은 화통도감에서 만든 화포로 진포 대첩[해전]에서 왜구를 물리쳤다(1380.8, 고려 우왕 6). 진포는 오늘날 금강 하류 일대로 충남 서천 남쪽이다(전북 군산이라는 소수설도 있음).

오답 해설>

- ① 교정도감은 무신 집권자인 최충헌(집권 1196-1219)에 의해 설치된 국정 총괄 기구이다(1209, 고려 희종 5).
- ② 대장도감은 팔만대장경[재조대장경]의 판각 업무를 담당한 관청이다(1236, 고려 고종 23). 강화(도)에 본사(本司)가 설치되어 업무를 주관하였고, (경남) 진주 관내인 남해현(南海縣)에 분사(分司)를 두어 일을 분담하였다.
- ③ 식목도감은 대내적인 법제와 격식을 관장하는 고려의 기구이다(성종 이후 현종 초 사이 설치 추정). 도병마사와 같이 재추(宰樞)의 회의 기관이다. 고려 성종 이후 현종 초 사이에 설치된 것으로 보고 있으며 문종 때 관제가 정비되었다. 고종 이후 몽골과의 전쟁 과정에서 도병마사의 기능이 확대되면서 단지 문서를 보관하는 기능만을 가진 기구로 전락하였고, 조선 초까지 지속되다가 태종 12년인 1412년에 의정부로 흡수되었다.

6 - 직지심체요절(하권)

6. (가) 문화유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 은/는 1377년 청주 흥덕사에서 인쇄한 것이다. 독일 구텐베르크가 인쇄한 책보다 70여 년 앞서 간행된 것으로 밝혀졌다. 현재 유네스코 세계 기록 유산으로 등재되어 있다.

- ① 최윤의 등이 지은 의례서를 인쇄한 것이다.
- ② 몽골의 침략을 물리치려는 염원을 담고 있다.
- ③ 현존하는 금속활자본 중에서 가장 오래된 것이다.
- ④ 우리나라 풍토에 맞는 처방과 약재 등이 기록되어 있다.

정답> ③

'(가)은/는 1377년 청주 흥덕사에서 인쇄한 것이다. 독일 구텐베르크가 인쇄한 책보다 70여 년 앞서 간행된 것으로 밝혀졌다. 현재 유네스코 세계 기록 유산으로 등재되어 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를 통해 주어진 자료 속 '(가)은/는 『직지심체요절』(하권)(상권은 전하지 않음)을 가리킴을 알 수 있다.

『직지심체요절』(하권)은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금속 활자본으로(1377, 고려 우왕 3), 2001년에 유네스코 세계 기록 유산으로 등재되었다. 정식 서명은 『백운화상 초록불조직지심체요절(白雲和尚抄錄佛祖直指心體要節)』이다.

오답 해설>

① 최윤의(1102~1162) 등이 지은 의례서를 인쇄한 문화유산은 『상정고금예문』이다. 고려 인종 대(재위 1122-1146, 제17대)에 최윤의 등이 왕명으로 고금의 예를 수집·고증하여 50권으로 엮은 전례서(典禮書)로, 정식 서명은 『상정예문』이다. 고려 고종 21년인 1234년에 금속 활자로 다시 간행되었다(~1241).

② 몽골의 침략을 물리치려는 염원을 담고 있는 문화유산은 (해인사) 팔만대장경판[재조대장경판]이다. 고려 고종 23년(1236)에서 38년(1251)까지 제작되었다. 부처의 힘으로 몽골의 침입을 물리치고자 만들기 시작했으며, 고종 23년인 1236년에 피난 도읍지인 강화에 대장도감 본사를 두고, 진주(晉州) 관내의 남해현에 본사를 두어 판각을 분담시켰다. 2007년에 유네스코 세계 기록 유산으로 등재되었다.

④ 우리나라 풍토에 맞는 처방과 약재 등이 기록되어 있는 문화유산은 구암 허준(1539~1615)이 조선과 중국의 의서를 집대성하여 완성한 『동의보감』이다(선조 대부터 집필 시작, 광해군 2년인 1610년 집필 완료, 내의원에서 광해군 5년인 1613년에 출간). 2009년에 유네스코 세계 기록 유산으로 등재되었다.

7 - 병인양요

7. 병인양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프랑스 함대가 강화부를 점령하였다.
- ② 외규장각이 소실되었고 의궤 등을 약탈당했다.
- ③ 어재연이 강화도 광성보 전투에서 전사하였다.
- ④ 프랑스 선교사와 천주교도가 처형당한 것이 원인이 되었다.

정답> ③

조선 고종 3년인 1866년 10월에 일어난 병인양요에 대해 묻는 문제이다(~1866.11).

진무중군 어재연(1823~1871)이 강화도 광성보 전투에서 로저스 제독이 이끄는 미군에 맞서 항전하다 전사한 것은 신미양요 때의 일이다(1871.5). 어재연이 강화도로 급파되면서 데리고 간 부대는 훈련도감에서 2초(1초는 125명), 금위영과 어영청, 총융청 등에서 각군 1초씩을 뽑은 총 1,000여 명의 군사들이었다. 이들은 광성보 소속의 3개 돈대에 조정 배치되었다[각종 대포 143문도 동원, 어재연 장군 동생인 어재순(1826~1871)도 참전하여 싸우다 전사].

오답 해설>

① 프랑스 극동 함대 사령관 로즈 제독(1812~1882)이 이끄는 프랑스군은 1866년 10월 14일 강화도 갑곶진에 상륙하였고, 15~16일 강화성을 공격하여 함락시켰다(11월 9일 양현수가 지킨 정족산성에서 패한 후 퇴각 결정).

② 강화성을 점령한 프랑스군은 그 일대를 수색하여 은괴와 각종 서적[외규장각 의궤], 귀중품, 무기 등을 약탈하였다.

④ 프랑스군 침략의 빌미가 된 것은 1866년 2월부터 발생한 병인박해 때문이었다. 이때 프랑스 주교 2명*과 선교사 9명, 많은 천주교 신자가 적발되어 처형되었다. 불과 수개월 사이에 국내 신도 8,000여 명이 학살되었는데, 해를 넘어 1860년대 내내 진행되었다. 이때 탈출에 성공한 리델 신부(1830~1884)가 텐진에 있던 프랑스 극동 함대 사령관 로즈 제독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로즈 제독은 이를 빌미로 같은 해 10월 조선을 침략한 것이다.

*프랑스 주교 2명: 베르뇌(Berneux, 張敬一, 1814~1866) 주교와 다블뤼(Daveluy, 安敦伊, 1818~1866) 주교를 가리킨다. 베르뇌 주교는 서울의 새남터에서 처형되었고, 다블뤼 주교는 충남 당진시 합덕읍 신리에서 처형되었다.

8 - 한인 애국단

8. 밑줄 친 '이 의거'를 일으킨 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김구는 상하이 각 신문사에 편지를 보내 자신이 이 의거의 주모자임을 스스로 밝혔다. 이 편지에서 김구는 윤봉길이 휴대한 폭탄 두 개는 자신이 특수 제작하여 직접 건넨 것이며, 일본 민간인을 포함하여 다른 나라 사람이 무고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라고 당부하였음을 강조하였다.

- ① 이봉창이 단원으로 활동하였다.
- ② 고종의 밀명을 받아 결성되었다.
- ③ 「조선 혁명 선언」을 활동 지침으로 삼았다.
- ④ 일제가 날조한 105인 사건으로 와해되었다.

정답> ①

'김구는 상하이 각 신문사에 편지를 보내 자신이 이 의거의 주모자임을 스스로 밝혔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이 편지에서 김구는 윤봉길이 휴대한 폭탄 두 개는 자신이 특수 제작하여 직접 건넨 것이며, 일본 민간인을 포함하여 다른 나라 사람이 무고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라고 당부하였음을 강조하였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한인 애국단원 매한 윤봉길(1908~1932)이 중국 상하이 훙커우 공원에서 열린 천장절 및 전승 축하식에서 폭탄을 던져 일본군 장성과 고관들을 살상한 것은 1932년 4월의 일이다(1932.4.29)(상하이 훙커우 공원 의거). 한인 애국단은 백범 김구(1876~1949) 주도로 1931년 10월 창설된 의열 단체이다. 위 자료에서 김구가 상하이 각 신문에 '윤봉길 의거'의 주모자임을 밝히는 편지를 보낸 것은 1932년 5월 9일이다(일제에 의해 수배되고 현상금 60만원 걸림, 중국 국민당 총재 장제스가 김구 보호 지시).

일본 도쿄에서 일왕 히로히토를 향해 수류탄을 던졌으나 성공하지 못한 이봉창(1901~1932) 역시 한인 애국단원이었다(1932.1.8).

오답 해설>

② 고종의 밀명을 받아 결성된 단체는 (대한) 독립 의군부이다. 독립 의군부는 유생 돈헌 임병찬(1851~1916)이 고종 황제의 밀명을 받아 만든 비밀 결사 단체로 복벽주의(復辟主義)*를 추구하였다(1912.9~1913.5). 일본(일본 총리대신과 조선 총독부)에 국권 반환 요구서를 제출하고자 하였다.

*복벽주의(復辟主義): '복벽'이란 물러났던 임금을 다시 왕위에 올리는 것을 뜻하는 바 대한 제국의 군주정 회복을 목표로 한 운동이나 사상을 가리킨다.

③ 「조선 혁명 선언」을 활동 지침으로 삼은 단체는 1919년 11월 중국 만주 지린성에서 조직된 의열단이다. 단재 신채호(1880~1936)는 의열단장 약산 김원봉(1898~1958)의 부탁을 받고 중국 상하이에서 '조선 혁명 선언'을 작성하였다(1923.1).

④ 일제가 날조한 105인 사건으로 와해된 단체는 국내에서 비밀 결사로 조직된 신민회이다(1907.4~1911.9).

9 - 3.1 운동

9. 다음 주장을 내세운 민족 운동은?

1. 오늘날 우리의 이 행동은 정의와 인도 그리고 생존과 존엄함을 지키기 위한 민족적 요구에서 나온 것이니, 오직 자유로운 정신을 발휘할 것이며 결코 배타적 감정으로 치달지 말라.
1. 마지막 한 사람까지 마지막 한순간까지 민족의 정당한 의사를 마음껏 발표하라.
1. 일체의 행동은 무엇보다 질서를 존중하며, 우리의 주장과 태도를 어디까지나 떳떳하고 정당하게 하라.

- ① 3.1운동
- ② 6.10 만세 운동
- ③ 물산 장려 운동
- ④ 민립 대학 설립 운동

정답> ①

'1. 오늘날 우리의 이 행동은 정의와 인도 그리고 생존과 존엄함을 지키기 위한 민족적 요구에서 나온 것이니, 오직 자유로운 정신을 발휘할 것이며 결코 배타적 감정으로 치달지 말라', '1. 마지막 한 사람까지 마지막 한순간까지 민족의 정당한 의사를 마음껏 발표하라', '1. 일체의 행동은 무엇보다 질서를 존중하며, 우리의 주장과 태도를 어디까지나 떳떳하고 정당하게 하라'는 내용이 차례로 제시되어 있다. 주어진 자료는 1919년 3.1 운동 때 발표된 기미독립선언서 중 만해 한용운(1879~1944)이 추가한 '공약 3장'이다.

오답 해설>

② 6·10 만세 운동은 1926년 6월 10일 순종의 장례일[인산일]을 계기로 일어난 만세 시위 운동이다. 천도교와 사회주의(조선 공산당) 계열, 그리고 학생 단체가 사전에 계획하였지만 중간에 천도교와 사회주의 계열의 지도부가 일제에 발각되어 검거되는 바람에 학생 단체(조선 학생 과학 연구회 등)가 만세 운동을 실행하였다.

③ 물산 장려 운동은 1920년 8월 평양에서 고당 조만식(1883~1950) 등의 주도로 처음 시작된 국산품 애용 운동이자 민족 경제 자립 실천 운동이다(조선 물산 장려회 조직). 자작회(自作會), 토산 애용 부인회가 서울에서 조직된 이후 더욱 활성화되었다(각 1922.12/1923.2).

④ 민립 대학 설립 운동은 우리[한국인]의 힘으로 고등 교육 기관인 대학을 설립하고자 전개한 운동이다. 1920년 6월 조선 교육회 설립 발기회가 개최되면서 처음 시작되었고, 1922년 11월 (조선) 민립 대학 설립 기성 준비회가 조직되면서 본격화되었다. 1923년 3월에는 조선 중앙기독교청년회관에서 민립 대학 기성회 발기[창립] 총회가 개최되기도 하였다. 하지만 이후 계속 시도된 민립 대학 설립 운동은 일제의 집요한 방해와 강압으로 경성 제국 대학 외에 단 하나의 민립 또는 사립 대학도 설립되지 못하였다.

10 - 동학 농민 운동

10. 다음 결의 사항을 실현하기 위해 일어난 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1. 고부성을 격파하고 군수 조병갑의 목을 베어 매달 것
- 1. 군기창과 화약고를 점령할 것
- 1. 군수에게 아침하여 백성을 침탈한 탐욕스러운 아전을 처서 징벌할 것
- 1. 전주 감영을 함락하고 서울로 곧바로 향할 것

- ① 해상공국 폐지 등의 정강을 발표하였다.
- ② 집강소를 설치하고 폐정개혁을 시도하였다.
- ③ 별기군에 비해 차별을 받던 구식 군인들이 일으켰다.
- ④ 13도 창의군을 조직하고 서울 진공 작전을 추진하였다.

정답> ②

'1. 고부성을 격파하고 군수 조병갑의 목을 베어 매달 것', '1. 군기창과 화약고를 점령할 것', '1. 군수에게 아침하여 백성을 침탈한 탐욕스러운 아전을 처서 징벌할 것', '1. 전주 감영을 함락하고 서울로 곧바로 향할 것'이 차례로 제시되어 있다. 주어진 자료(결의 사항)는 1893년 11월(음력) 전북 고부(지금의 전북 정읍)에서 전봉준(1855~1895) 등 20명이 봉기를 일으키기로 결의한 후 각 마을의 집강들에게 보낸 사발통문(沙鉢通文)의 내용이다. 이후 전봉준은 농민을 이끌고 고부 관아를 습격하였다(1894.1.10)(고부 농민 봉기).

집강소는 동학 농민군이 정부와 합의로 설치한 일종의 농민 자치 기구이자 자치적 민정 기구이다(1894년 7월 6일에 전봉준과 전라도 관찰사인 김학진 사이에 집강소 설치 합의). 동학 농민군은 호남 지방(전라도)의 각 군현[53군현]에 집강소를 설치하여 폐정 개혁을 시도하였다.

오답 해설>

- ① 해상공국 폐지 등의 정강을 발표한 것은 갑신정변 때의 일이다[1884.10.17~19(음력)/1884.12.4~6(양력)](혁신(개혁) 정강 14개조 중 제9조).
- ③ 별기군에 비해 차별을 받던 구식 군인들이 일으킨 사건은 임오군란이다[1882.6.9~7.13(음력)/1882.7.23~8.30(양력)].
- ④ 13도 창의군을 조직하고 서울 진공 작전을 추진한 것은 1907년 12월과 1908년 1월의 일이다(정미의병). 13도 창의군은 고종 황제의 퇴위와 군대 해산을 계기로 전국에서 일어난 의병들이 1907년 12월 경기도 양주에 모여 조직되었으며(1907.12.6), 이때 총병력은 1만여 명에 이르렀고, 이 가운데 해산된 군인 3,000명이 포함되었다(초애장 이인영, 군사장 허위, 전 병력을 24개 진으로 하는 12도 창의대진소로 편성). 이듬해 1월 서울 진공 작전을 펼쳤다(300명의 선발대가 서울 부근, 즉 동대문 밖 30리 지점까지 진격했다가 일본군의 선제공격을 받아 후퇴).

11 - 고종 성종 대의 사실

11. 다음 상소문이 올라간 국왕 대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불교는 몸을 닦는 근본이며 유교는 나라를 다스리는 근원입니다. 몸을 닦는 것은 내생을 위한 것이며 나라를 다스리는 일은 곧 오늘의 할 일입니다. 오늘은 극히 가깝고 내생은 지극히 먼 것이니, 가까운 것을 버리고 먼 것을 구하는 일이 그릇된 일이 아니겠습니까.

- ① 개경에 나성을 쌓았다.
- ② 전시과 제도를 처음 실시하였다.
- ③ 전국의 주요 지역에 12목을 설치하였다.
- ④ 「노비안검법」을 실시하여 호족 세력을 약화시켰다.

정답> ③

'불교는 몸을 닦는 근본이며 유교는 나라를 다스리는 근원입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몸을 닦는 것은 내생을 위한 것이며 나라를 다스리는 일은 곧 우리의 할 일입니다. 오늘은 극히 가깝고 내생은 지극히 먼 것이니, 가까운 것을 버리고 먼 것을 구하는 일이 그릇된 일이 아니겠습니까'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를 통해 주어진 자료는 최승로(927~989)가 고려 성종(재위 981~997, 제6대)에게 올린 상소문인 시무 28조를 가리키는 것임을 알 수 있다(위 자료는 그중 제20조)(982, 성종 원년).

전국의 주요 지역에 12목을 설치하고 목사[지방관, 외관]을 파견한 것은 성종 2년인 983년의 일이다.

오답 해설>

- ① (거란의 침입에 대비하여) 개경에 나성을 쌓은 것은 고려 현종 대(재위 1009~1031, 제8대)의 일이다[1009(현종 즉위년)~1029(현종 20)]. 강감찬(948~1031)이 개경을 방어하기 위한 목적으로 건의한 것을 수용한 것이다.
- ② 전시과 제도를 처음 실시한 것은 고려 경종 원년인 976년의 일이다. 전지와 시지*를 나누어 주었다. *전지(田地)와 시지(柴地): 전지는 말 그대로 논과 밭을 이르는 말이고, 시지는 땔나무를 공급하기 위해서 지급했던 토지를 가리킨다. 시지는 땔나무를 공급하기 위한 것이었으므로 대개 수도인 개경 부근에 위치하였다.
- ④ 「노비안검법」을 실시하여 호족 세력을 약화시킨 것은 고려 광종 7년인 956년의 일이다.

12 - 조선 광해군 대의 사실

12. 밑줄 친 '왕'의 재위 기간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당초에 강홍립 등이 압록강을 건너게 된 것은 왕이 명 조정의 지원군 요청을 거부하기 어려워 출사시킨 것이었다. 우리나라는 애초부터 그들을 원수로 대하지 않아 싸울 뜻이 없었다. 그래서 왕이 강홍립에게 비밀리에 명령을 내려 오랑개와 몰래 통하게 하였던 것이다.

- ① 전국에 「대동법」을 실시하였다.
- ② 허준이 「동의보감」을 편찬하였다.
- ③ 자의 대비의 복상 문제로 예송이 일어났다.
- ④ 청과 국경을 정하기 위해 백두산정계비를 세웠다.

정답> ②

'당초에 강홍립 등이 압록강을 건너게 된 것은 왕이 명 조정의 지원군 요청을 거부하기 어려워 출사시킨 것이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우리나라는 애초부터 그들을 원수로 대하지 않아 싸울 뜻이 없었다. 그래서 왕이 강홍립에게 비밀리에 명령을 내려 오랑개와 몰래 통하게 하였던 것이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를 통해 주어진 자료 속 밑줄 친 '왕'은 조선의 제15대 국왕인 광해군(재위 1608-1623)을 가리킴을 알 수 있다. 5도 도원수 강홍립(1560~1627)이 파병되었다가 후금에 항복한 것은 광해군 11년인 1619년 3월의 일이다(사르후 전투*).

구암 허준(1539~1615)이 『동의보감』을 내의원에서 편찬한 것은 광해군 5년인 1613년의 일이다(선조 대부터 집필 시작, 『동의보감』을 완성한 것은 광해군 2년인 1610년).

*사르후 전투: 조·명 연합군이 후금[청]의 군대가 만주의 사르후에서 맞서 싸운 전투로 조·명 연합군이 대패하였다. 이후 명청교체의 분수령이 된 전투로 평가되고 있다(1619.3.1~4)(사르후 전투, 상간하다 전투, 아부달리 전투, 부차 전투가 순차적으로 발생).

오답 해설>

① 전국에 「대동법」을 실시한 것은 조선 숙종 34년인 1708년의 일이다(1608~1708)(공납의 전세화). 광해군 즉위년인 1608년 경기도에 한하여 대동법을 처음 실시한 지 100여 년만의 일이었다(경기도와 강원도, 충청도와 전라도, 경상도와 황해도로 확대 적용).

③ 자의 대비**의 복상 문제로 예송이 일어난 것은 조선 현종 대(재위 1659-1674, 제18대)이다[1차 예송(기해예송)-1659(현종 즉위년)/2차 예송(갑인예송)-1674(현종 15)]. 예송은 차남으로 왕위에 오른 효종의 정통성을 인정함(장자로 대우)으로써 왕권을 강화하려는 남인과 효종의 정통성을 인정하지 않음(장자로 대우하지 않음)으로써 신권을 강화하려는 서인 간의 권력 투쟁[이념 대립]이었다.

**자의 대비: 16대 국왕인 인조의 계비인 장렬 왕후(1624~1688)이다. 현종 대의 대왕대비(현 왕의 할머니)로 조대비라고도 하였다.

④ 청과 국경을 정하기 위해 백두산정계비를 세운 것은 조선 숙종 38년인 1712년의 일이다.

13 - 영주 부석사 무량수전과 보은 법주사 팔상전

13. (가), (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옳게 짝지은 것은?

(가)은 고려시대 건축물이며 배흘림기둥과 주심포양식으로 단아하면서도 세련된 아름다움을 담고 있다.
 (나)은 우리나라에 남아 있는 조선시대 건축물 중 유일한 5층 목탑이다.

- | | |
|---------------|------------|
| (가) | (나) |
| ① 영주 부석사 무량수전 | 김제 금산사 미륵전 |
| ② 영주 부석사 무량수전 | 보은 법주사 팔상전 |
| ③ 합천 해인사 장경판전 | 김제 금산사 미륵전 |
| ④ 합천 해인사 장경판전 | 보은 법주사 팔상전 |

정답> ②

위에서 '(가)은 고려 시대 건축물이며 배흘림기둥과 주심포양식으로 단아하면서도 세련된 아름다움을 담고 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아래에서 '(나)은 우리나라에 남아 있는 조선 시대 건축물 중 유일한 5층 목탑이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고려 시대 건축물로 배흘림기둥과 주심포양식으로 된 것은 3개가 있다. 안동 봉정사 극락전과 영주 부석사 무량수전, 예산 수덕사 대웅전이 그것이다[앞의 두 건축물은 13세기 초로 추정, 수덕사 대웅전은 1308년(충렬왕 34)]. 영주 부석사 무량수전 내부에는 소조(아미타)여래 좌상이 봉안되어 있다. 무량수전은 부석사의 본전(本殿)으로 신라 문무왕 16년인 676년에 의상 대사가 왕명을 받들어 창건되었다. 예산 수덕사 대웅전에는 석가모니불을 모시고 있으며, 고려 시대 건축물 중 특이하게 백제적 곡선미를 갖춘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수덕사는 삼국 시대 백제 말인 7세기 중엽에 창건). 선지에는 영주 부석사 무량수전이 나와 있으므로 그것을 해당하는 건축물로 보면 된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남아 있는 조선 시대 건축물 중 유일한 5층 목탑은 곧 조선 후기인 17세기 (사원[사찰]) 건축물인 보은 법주사 팔상전을 가리킨다(선조 38년인 1605년에 재건되고, 인조 4년인 1626년에 다시 수리). 보은 법주사 팔상전은 다층[5층] 목탑으로, 내부는 3층까지 하나로 통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참고로 같은 17세기의 건축물인 김제 금산사 미륵전도 마찬가지로 법당 내부가 하나로 통하는, 통층(식) 구조로 되어 있다(단, 법주사 팔상전처럼 5층 목탑이 아니라 '3층 법당'임).

오답 해설>

①, ③ 김제 금산사 미륵전은 보은 법주사 팔상전, 구례 화엄사 각황전과 함께 조선 후기인 17세기의 건축물이다(1635, 인조 13). 다포 양식과 팔작지붕으로 지어졌으며, 겉모양만 3층이고 내부는 통층(通層)으로 되어 있다.

③, ④ 합천 해인사 장경판전은 조선 전기인 15세기의 건축물이다. 팔만대장경[판]을 봉안하기 위해 지어진 목판 보관용 건축물로 경남 합천군 가야산에 소재한다. 참고로 15세기에는 궁궐과 도성 건축, 사찰 건축이, 16세기에는 서원 건축이 대표적으로 이루어졌다.

14 - 조선 시대의 수취 제도

14. (가) ~ (라)를 시기 순으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 (가) 지주에게 결작이라 하여 토지 1결당 미곡 2두씩을 부담시켰다.
- (나) 전세를 풍흉에 관계없이 토지 1결당 미곡 4~6두로 고정시켰다.
- (다) 조세는 토지 1결당 수확량 300두의 10분의 1 수취를 원칙으로 삼았다.
- (라) 조세를 토지 비옥도와 풍흉의 정도에 따라 1결당 최고 20두에서 최하 4두로 하였다.

- ① (다)→(라)→(가)→(나)
- ② (다)→(라)→(나)→(가)
- ③ (라)→(다)→(가)→(나)
- ④ (라)→(다)→(나)→(가)

정답> ②

(가)에 '지주에게 결작이라 하여 토지 1결당 미곡 2두씩을 부담시켰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지주에게 결작을 부과한 것은 균역법 시행으로 인해 부족해진 세수를 보충하기 위해서였다(1750, 영조 26). (나)에는 '전세를 풍흉에 관계없이 토지 1결당 미곡 4~6두로 고정시켰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조선 인조 13년에 시행된 영정법을 가리킨다. (다)에는 '조세는 토지 1결당 수확량 300두의 10분의 1 수취를 원칙으로 삼았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공법 시행 전인) 과전법에서의 전세 수취 방식을 가리킨다(1391, 고려 공양왕 3). 10분의 1 수취가 원칙이었고 매년 풍흉을 조사하여 그 수확량에 따라 납부액을 조정하였다. (라)에는 '조세를 토지 비옥도와 풍흉의 정도에 따라 1결당 최고 20두에서 최하 4두로 하였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조선 세종 26년인 1444년에 처음 시행된 공법을 가리킨다(전분6등법/연분9등법). 참고로 공법이 지역별로 점차 시행하다 전국에 걸쳐 실시하게 된 것은 성종 20년인 1489년의 일이다.

이상을 시기 순으로 나열하면, '(다)→(라)→(나)→(가)'가 된다.

15 - 초정 박제가

15. 다음과 같이 주장한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용할 줄 모르니 생산할 줄 모르고, 생산할 줄 모르니 백성은 나날이 궁핍해지는 것이다. 비유하건대, 대체로 재물은 우물과 같다. 퍼내면 가득 차고, 버려두면 말라 버린다. 그러므로 비단을 입지 않아서 나라에 비단 짜는 사람이 없게 되면, 여공이 쇠퇴한다. 쪼그러진 그릇을 싫어하지 않고 기교를 숭상하지 않아서 공장이 숙련되지 못하면 기예가 망하게 된다.

- ① 청과의 통상과 수례의 이용을 주장하였다.
- ② 양명학을 연구하여 강화학파를 형성하였다.
- ③ 토지의 매매를 제한하는 한전론을 주장하였다.
- ④ 지전설을 주장하여 중국 중심의 세계관을 비판하였다.

정답> ①

'이용할 줄 모르니 생산할 줄 모르고, 생산할 줄 모르니 백성은 나날이 궁핍해지는 것이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비유하건대, 대체로 재물은 우물과 같다. 퍼내면 가득 차고, 버려두면 말라 버린다. 그러므로 비단을 입지 않아서 나라에 비단 짜는 사람이 없게 되면, 여공이 쇠퇴한다. 쪼그러진 그릇을 싫어하지 않고 기교를 숭상하지 않아서 공장이 숙련되지 못하면 기예가 망하게 된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일종의 '우물론'으로, 이를 주장한 인물은 조선 후기의 실학자 초정 박제가(1750~1805)이다.

박제가는 『북학의』에서 청과의 통상은 물론 선박, 수레, 벽돌 등 발달된 청의 기술을 이용할 것을 주장하였다(1778, 정조 2).

오답 해설>

② 양명학을 연구하여 강화학파를 형성한 인물은 하국 정제두(1649~1736)이다. 양명학은 심즉리(心即理)를 내세우고, 지행합일[지행일치]의 실천을 위주로 하는 치양지설*을 주장한 신 유가 철학이다.

*치양지설(致良知說): 인간이 천리인 양지(良知)를 실현하여 사물을 바로잡음을 뜻한다.

③ (『곽우록』**에서) 토지의 매매를 제한하는 한전론을 주장한 인물은 성호 이익(1681~1763)이다(저술 연대 미상). 이익은 자영농의 몰락을 막기 위하여 기본적인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토지이자 매매 불가능한 영업전을 설정(할당)하였다(일종의 '토지 소유의 하한선' 제시). 참고로 연암 박지원(1737~1805)도 한전론적 토지 개혁안[한전론]을 제시한 바 있다[『연암집(燕巖集)』의 「한민명전의(限民名田議)」, 1799(정조 23)].

**『곽우록』의 뜻: 재야에 있는 평민은 국가의 문제를 논할 자격이 없지만, 국가 정책이 잘못되면 백성이 직접 피해를 입기 때문에 이를 좌시할 수 없어 분수에 넘치는 안을 제시하는 '천민의 걱정'이라는 뜻으로 붙인 이름이다.

④ 지전설을 주장하여 중국 중심의 세계관을 비판한 인물은 담헌 홍대용(1731~1783)이다. 홍대용은 『의산문답』에서 지구 구형설과 함께 지전설, 무한우주론 등을 주장하면서 중국 중심의 세계관, 성리학적 세계관을 비판하였다(1766, 영조 42).

16 - 근우회

16. 다음 창립 취지문을 발표한 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우리 사회에서도 여성운동이 제기된 것은 또한 이미 오래되었다. 그러나 회고하여 보면 여성운동은 거의 분산되어 있었다. 그것에는 통일된 조직이 없었고 통일된 목표와 정신도 없었다. ... (중략) ... 우리가 실제로 우리 자체를 위해, 우리 사회를 위해 분투하려면 우선 조선 자매 전체의 역량을 공고히 단결하여 운동을 전반적으로 전개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 ① 호주제 폐지 운동을 전개하였다.
- ② 여학교 설립을 주장하는 「여권통문」을 발표하였다.
- ③ 어린이날을 제정하고 잡지 『어린이』를 창간하였다.
- ④ 봉건적 인습 타파, 여성 노동자의 임금 차별 철폐 등을 주장했다.

정답> ④

'우리 사회에서도 여성 운동이 제기된 것은 또한 이미 오래되었다. 그러나 회고하여 보면 여성 운동은 거의 분산되어 있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그것에는 통일된 조직이 없었고 통일된 목표와 정신도 없었다. ... (중략) ... 우리가 실제로 우리 자체를 위해, 우리 사회를 위해 분투하려면 우선 조선 자매 전체의 역량을 공고히 단결하여 운동을 전반적으로 전개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를 통해 주어진 자료는 1927년 5월 서울 YMCA 강당에서 발기한 근우회의 창립 취지문임을 알 수 있다.

근우회는 신간회의 자매단체의 성격을 띠며 항일 구국 운동과 여성 지위 향상 운동에 주력하였다. 봉건적 인습 타파, 여성 노동자의 임금 차별 철폐 등을 주장하였다.

오답 해설>

①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호주제 폐지 운동이 본격적으로 전개된 것은 김대중 정부 시기인 1999년 5월 여성 단체 연합이 '호주제폐지운동본부'를 발족하면서부터이다. 그 결과 노무현 정부 시기인 2005년 3월에 호주제 폐지 관련 법률이 공포되었고 (2005.3.31)(호주제 폐지 관련 민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은 그 직전인 2005년 3월 2일), 호주제가 실제로 폐지된 것은 노무현 정부 말기인 2008년 1월의 일이다(2008.1.1)(시행일).

② 여학교 설립을 주장하는 『여권통문』이 발표된 것은 광무 2년이자 고종 35년인 1898년 9월의 일이다 (1898년 9월 1일 공포, 일종의 '여성 권리 선언문'). 서울 북촌 양반 여성들이 주축이 되고 300여 명의 여성들이 찬동해 이루어졌다. 그리고 이들은 여권통문을 먼저 돌린 직후 찬양회(贊襄會)*를 조직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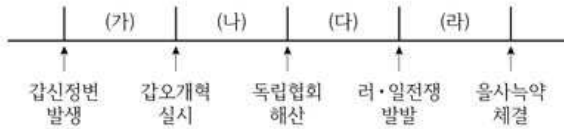
*찬양회는 양성원(養成院), 순성회(順成會), 찬양회(讚揚會) 등으로도 불렸으며 통문에서 '신체 수족 이목이 남녀간에 다름이 없는데 어찌하여 여자는 병신 모양으로 평생을 심규에 처하여 남자의 절제를 받는가? 여학교를 세워 남녀평등을 이룩'할 것을 주장하였다. 교육받을 권리와 직업권 및 정치 참여권을 내용으로 하는 찬양회의 통문은 천부 인권 사상에 기초한 것으로 이후 찬양회는 여학교 설립 운동과 여성의 계발 등의 사업을 추진하였다. 독립 협회가 이끈 만민 공동회의 자유 민권 운동에도 참가하였다.

③ 어린이날을 제정하고, 잡지 『어린이』를 발간한 단체는 천도교 소년회이다(1921.5). 1923년 3월에 (아동) 잡지 『어린이』가 발간되었고, 같은 해 5월 1일을 어린이날로 제정하였다.

17 - 대한민국 국제

17. 다음 법령이 반포된 시기는?

- 제1조 대한민국은 세계 만국에 공인된 자주 독립한 제국이다.
- 제2조 대한 제국의 정치는 이전으로부터 500년이 내려왔고 이후로도 만세에 걸쳐 변치 않을 전제정치이다.
- 제3조 대한민국 대항제는 무한한 군권을 향유하니 공법에서 말한 바 자립 정제이다.
- 제4조 대한민국 신민이 대항제가 향유하는 군권을 침해할 행위가 있으면 신민의 도리를 잃은 자로 인정할 것이다.



- ① (가)
- ② (나)
- ③ (다)
- ④ (라)

정답> ③

제1조에 '대한국민 세계 만국에 공인된 자주독립한 제국이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제2조에는 '대한 제국의 정치는 이전으로부터 500년이 내려왔고 이후로도 만세에 걸쳐 변치 않을 전제 정치이다'는 내용이, 제3조에는 '대한국 대항제는 무한한 군권을 향유하니 공법에서 말한 바 자립 정제이다'는 내용이, 제4조에는 '대한국 신민이 대항제가 향유하는 군권을 침해할 행위가 있으면 신민의 도리를 잃은 자로 인정할 것이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를 통해 주어진 법령은 광무 3년이자 고종 36년인 1899년 8월에 반포된 대한민국 국제를 가리킴을 알 수 있다. 한국 최초의 근대적 헌법으로, 고종 황제의 무한한 군주권이 천명되었다.

연표에서는 독립 협회가 해산된 1898년 12월(1898년 12월 28일에 내려진 민회 금압령으로 독립 협회 사실상 해체)과 러일 전쟁이 발발한 1904년 2월 사이 시기인 '(다)'에 해당한다.

<18번 해설>

내용이 나와 있다. 평안도 지역에 대한 차별과 지배층의 수탈에 항거하여 흥경래의 난이 일어난 것은 조선 순조 11년인 1811년의 일이다[1811.12~1812.4(음력)/1812.1~1812.5(양력)].

이상의 사건을 시기 순으로 나열하면, '(다)→(가)→(라)→(나)'가 된다.

18 - 각 시대별 난(봉기)

18. (가) ~ (라)의 사건을 시기 순으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 (가) 남쪽 지방에서 반란군이 봉기하였다. 가장 심한 자들은 운문을 거점으로 한 김사미와 초전의 효심이었다. 이들은 유랑민을 불러 모아 주현을 습격하여 노략질하였다.
- (나) 진주의 난민들이 소동을 일으킨 것은 오로지 전 우병사 백낙신이 탐욕을 부려 수탈하였기 때문입니다. ... (중략) ... 이에 민심이 들끓고 노여움이 일제히 폭발해서 전에 듣지 못하던 변란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 (다) 여러 주·군에서 공물과 조세를 보내지 않아 나라의 씹씀이가 궁핍하게 되었으므로 왕이 사자를 보내 독촉하였다. 이로 인해 도적들이 곳곳에서 벌떼처럼 일어났다. 원종과 애노 등이 사벌주를 근거지로 반란을 일으켰다.
- (라) 평서 대원수는 급히 격문을 띄우노라. ... (중략) ... 조정에서는 서쪽 땅을 더러운 흙처럼 버렸다. 심지어 권세 있는 집의 노비들도 서쪽 사람을 보면 반드시 평안도 놈이라 일컫는다. 서쪽 땅에 있는 자로서 어찌 억울하고 원통하지 않겠는가.

- ① (가)→(다)→(나)→(라)
- ② (가)→(다)→(라)→(나)
- ③ (다)→(가)→(나)→(라)
- ④ (다)→(가)→(라)→(나)

정답> ④

(가)에 '남쪽 지방에서 반란군이 봉기하였다. 가장 심한 자들은 운문을 거점으로 한 김사미와 초전의 효심이었다. 이들은 유랑민을 불러 모아 주현을 습격하여 노략질하였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경상도 운문(청도)과 초전(울산)에서 김사미와 효심의 난이 일어난 것은 고려 명종 23년인 1193년의 일이다. (나)에는 '진주의 난민들이 소동을 일으킨 것은 오로지 전 우병사 백낙신이 탐욕을 부려 수탈하였기 때문입니다. ... (중략) ... 이에 민심이 들끓고 노여움이 일제히 폭발해서 전에 듣지 못하던 변란으로 나타난 것입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조선 철종 13년인 1862년 삼정의 문란에 일어난 진주 농민 봉기(임술 농민 봉기)임을 알 수 있다(1862.2). 진주 농민 봉기의 수습책으로 삼정이정청이 (임시로) 설치되었다(안핵사로 파견된 박규수 건의). (다)에는 '여러 주·군에서 공물과 조세를 보내지 않아 나라의 씹씀이가 궁핍하게 되었으므로 왕이 사자를 보내 독촉하였다. 이로 인해 도적들이 곳곳에서 벌떼처럼 일어났다. 원종과 애노 등이 사벌주를 근거지로 반란을 일으켰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원종과 애노의 난이 (지금의 경북 상주인) 사벌주에서 일어난 것은 신라 진정 여왕 3년인 889년의 일이다. (라)에는 '평서 대원수는 급히 격문을 띄우노라. ... (중략) ... 조정에서는 서쪽 땅을 더러운 흙처럼 버렸다. 권세 있는 집의 노비들도 서쪽 사람을 보면 반드시 평안도 놈이라 일컫는다. 서쪽 땅에 있는 자로서 어찌 억울하고 원통하지 않겠는가'라는

19 -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과

시모노세키 조약 사이의 사실

19. (가), (나) 사이에 있었던 사실로 옳지 않은 것은?

(가) 조선은 오랫동안 제후국으로서 중국에 대해 정해진 전례가 있다는 것은 다시 의논할 여지가 없다. …(중략)… 이번엔 제정한 수륙 무역 장정은 중국이 속방을 우대하는 뜻이니만큼, 다른 조약 체결국들이 모두 똑같은 이익을 균점하도록 하는 데 있지 않다.

(나) 제1조 청국은 조선국이 완전무결한 독립 자주국임을 확인한다. 아울러 조선의 청에 대한 공물 헌납 등은 장래에 완전히 폐지한다.

제4조 청국은 군비 배상금으로 은 2억 냥을 일본국에 지불할 것을 약정한다.

- ① 영국이 거문도를 점령하였다.
- ② 한·청 통상조약이 체결되었다.
- ③ 김옥균 등이 갑신정변을 일으켰다.
- ④ 청과 일본 사이에 전쟁이 발발하였다.

정답> ②

(가)에 '조선은 오랫동안 제후국으로서 중국에 대해 정해진 전례가 있다는 것은 다시 의논할 여지가 없다. …(중략)… 이번엔 제정한 수륙 무역 장정은 중국이 속방을 우대하는 뜻이니만큼, 다른 조약 체결국들이 모두 똑같은 이익을 균점하도록 하는 데 있지 않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임오군란을 진압한 청에 의해 강요된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을 가리킴을 알 수 있다(전문)(1882.8.23). 제4조에서 중국 상인이 양화진을 비롯한 조선 내륙으로 진출할 수 있는 권리, 즉 내지 통상권이 최초로 규정되었다. 이어 (나)의 제1조로 '청국은 조선국이 완전무결한 독립 자주국임을 확인한다. 아울러 조선의 청에 대한 공물 헌납 등은 장래에 완전히 폐지한다'는 내용이, 제4조로 '청국인 군비 배상금으로 은 2억 냥을 일본국에 지불할 것을 약정한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청일 전쟁 결과 청과 일본 사이에 체결된 시모노세키 조약을 가리킴을 알 수 있다(1895.4.17), 한·청 통상 조약이 체결된 것은 광무 3년이자 고종 36년인 1899년 9월의 일이다(1899.9.11).

오답 해설>

- ① 영국이 거문도를 (불법) 점령한 것은 고종 22년인 1885년 4월의 일이다(~1887.2)(이른바 '거문도 사건').
- ③ 김옥균 등이 (우정총국 개국 축하연을 이용하여) 갑신정변을 일으킨 것은 고종 21년인 1884년 12월의 일이다[1884.10.17~19(음력)/1884.12.4~6(양력)].
- ④ 청과 일본 사이에 전쟁(청일 전쟁)이 발발한 것은 1894년 7월의 일이다(1894.7.25~1894.4.17).

20 - 농지 개혁법

20. 다음 법령에 의해 실시된 정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1조 본법은 헌법에 의거하여 농지를 농민에게 적정히 분배함으로써 …(중략)… 농민 생활의 향상 내지 국민 경제의 균형과 발전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2조 농지의 분배는 농지의 종목, 등급 및 농가의 능력 기타에 기준한 점수제에 의거하되 1가당 총경영면적 3정보를 초과하지 못한다.

- ① 한국민주당과 지주층의 반발로 중단되었다.
- ② 주택 개량, 도로 및 전기 확충 등도 추진하였다.
- ③ 유상 매수, 유상 분배의 방식으로 시행되었다.
- ④ 자작농이 감소하고 소작농이 증가하는 결과를 낳았다.

정답> ③

제1조로 '본법은 헌법에 의거하여 농지를 농민에게 적정히 분배함으로써 …(중략)… 농민 생활의 향상 내지 국민 경제의 균형과 발전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제12조로 '농지의 분배는 농지의 종목, 등급 및 농가의 능력 기타에 기준한 점수제에 의거하되 1가당 총경영면적 3정보를 초과하지 못한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를 통해 제시된 법령은 1949년 6월에 제정되고 1950년 3월에 공포된 농지 개혁법임을 알 수 있다(각 1949.6.21/1950.3.10).

농지 개혁법은 유상 매수, 유상 분배의 방식으로 시행되었다(원칙).

오답 해설>

- ① 농지 개혁법은 한국인 지주 소유 농지에 대한 개혁이었다. 한국민주당과 지주층의 반발로 농지 개혁법의 입법과 개정, 시행까지는 오랜 기간이 소요되었다. 하지만 농지 개혁법은 1950년 3월에 개정(농지 개혁법 공포)과 시행령을, 같은 해 4월에 시행규칙까지 제정되면서 중단없이 추진되었다. 참고로 한국민주당(줄여서 '한민당')은 1949년 2월 대한국민당과 합당하여 민주국민당(줄여서 '민국당')으로 재출범하였다(1949.2.10).
- ② 주택 개량, 도로 및 전기 확충 등과 같은 농촌 지역 개발 사업이 추진된 것은 1970년 4월부터 시작된 새마을 운동에서이다.
- ④ 소작농이 감소하고 자작농이 증가하는 결과를 낳았다. 반대로 설명하였다.

- 이 상 -